

저자 卞麟錫
(Authors)

출처 [신라사학보](#) , (19), 2010.8, 357-369 (13 pages)
(Source) [SILLASAHAKPO](#) , (19), 2010.8, 357-369 (13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89>

APA Style 卞麟錫 (2010). 《三國遺事》 `神呪`篇에 나타난 新羅 密敎 전파의 검토. 신라사학보, (19), 357-369.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8/08 11: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특별논단】

《三國遺事》 ‘神呪’篇에 나타난 新羅 密教 전파의 검토

卞麟錫*

I. 머리말

III. 맺음말

II. 《三國遺事》 중 密教 관련의
내용 분석

I. 머리말

《三國遺事》(권5)에 신라 밀교승의 이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①密本, ②惠通, ③老居士, ④因惠, ⑤明朗 등이 그들이다.

위 ①②⑤는 모두 당나라에 들어가 印度胎藏界를 전파한 善無畏
三藏으로부터 직접 密法을 전수 받아 귀국하였다.

위의 전파자들이 실제로 신비의 法術을 부렸기 때문에 밀교승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②⑤는 ‘密本이 雅惡한 道를 부수다(密本摧邪)’
와 ‘네가 나의 神通한 이적을 보라(汝見我通乃奉爐咒香)’條에 나오는

* 前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주인공인 것으로 보아 이들 또한 밀교승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신비의 呪法으로 現世의 모든 소망을 추구하는 신통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①②⑤는 《삼국유사》를 지은 고려 후기의 저명한 석 일연(釋一然)이 선무의 삼장과 함께 묶어 놓았기 때문에 紀年상에 혼란을 준다. 이와 반대로 《삼국유사》에 수록되지 아니한 선무외의 法嗣에 신라승 不可思議와 弘印이 있다. 불가사의 저술은 《大正藏》에 수록되었다.¹⁾ 《삼국유사》(권4)에 의하면 悟眞은 義湘의 제자로 기술하였다. 당에서는 청룡사 惠果 아래서 밀법을 배우다가 中天竺에 갔다. 그곳에서 범어로 된 珍本の 《비로자나경》을 구득하여 돌아오던 중 吐蕃에서 생을 마쳤다. 오백나한의 제479호 존자에 올랐다.

근대에 와서 한국의 李能和와 일본의 구즈고즈 곱가이텐(忽滑谷快天)에 의하여 언급되기까지 밀교를 처음 신라에 전파한 僧人은 보류되어 왔던 것이다. 이들이 지목한 신라 僧人의 原史料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위 두 先學이 펴낸 《朝鮮佛敎通史》, 《朝鮮禪敎史》가 간략히 서술되었기 때문에 원사료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필자가 이 부분을 되짚어 보기 위해 《삼국유사》(권5)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려 한다. 이 경우 다음을 고려하게 된다.

첫째, 명랑이 선무의 삼장의 알맹이 眞髓의 밀법을 전수받아 중생의 惡業을 消毒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한 病魔를 몰아 낸 사례가 공통되지만 명랑의 경우가 밀교弘敎에 있어서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

둘째, 실제적으로 신라의 밀교가 명랑 때 와서 크게 세력을 떨쳤다. 뿐만 아니라 명랑 후 이의 流裔가 뚜렷하여 隆盛한 발전을 보았음이 나타난다. 고려 초에는 廣學 大德·大緣 三重등이 신인종에 의탁하였다. 아울러 명랑이 정통적인 밀교방식에 따라 수행하였다. 신인종을 연 宗祖가 되었다.

위와 같이 명랑이 다른 초기의 밀교승과 차별화 되는 것은 선무의

1) 不可思議 撰, 《大毗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上·下(《大正藏》 권39) 참조.

삼장으로부터 밀법의 진수를 받아 왔을 뿐 만 아니라, 그의 宣法 또한 괄목하여 天磨山에 總持窟을, 母岳에 咒錫院을 세워 중심 도량으로 삼았다. 灌頂은 道場에서만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밀종은 理·事의 灌行에 의지하기 때문에 三密瑜伽(·應)를 습득하여 실지(悉地·成就)를 얻게 된다.

본고에서 기도하는 바는 《三國遺事》의 저자인 승 一然이 밀교의 전파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三國遺事》 중 密教 관련의 내용 분석

1. 善無畏 入唐과 《三國遺事》의 紀年

《三國遺事》는 섬서 戶縣에 자리한 이른바 ‘新羅王子臺’를 두고 “중남산 운제사 동쪽 기슭 위의 바위에 나무를 걸쳐 움막을 지어 기거하였다(於終南雲際寺東懸巒之上, 架室居焉)”고 말한 것이 너무나 사실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한 필자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²⁾ 이후 이의 原史料가 《續高僧傳》(권24)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을 격하시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원사료를 채택할 때는 객관적인 편찬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리지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가 없고서는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한국 밖의 地名, 山勢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年代의 서술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삼국유사》의 저자는 중국의 원사료를 채택함에 있어서 전자는 《續高僧傳》을 그대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무난하였지만 밀교의 신라

2) 卞麟錫, 《唐 長安의 新羅史蹟》, 韓國學術情報, 2008, 408쪽 참조.

전파에 관한 연대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 후자에 대하여 채택한 原史料가 무엇이며, 착오를 일으킨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핵심과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당나라 태종 때 입당한 명랑 아사리와 선무외 삼장의 입당이 마주칠 수 없는 시간이다.

2. 《三國遺事》에 수록된 眞言呪語

《삼국유사》 중에는 진언주어에 속하는 用語, 術語가 적지 않게 찾아진다. 이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神呪’ ‘神術’ ‘神仙之術’ ‘總持’ ‘咒香’ ‘咒之立活’ ‘神印’ ‘神印宗祖’ ‘印法禳之’ ‘龍宮’ ‘逐毒龍’ ‘龍主’ ‘斷瓶項(法)’ ‘砂瓶’ 등이다. 이들 용어는 灌頂法의 폭 넓은 운용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를 밀교의 근본정신에 좁혀 본다면 息災, 增益, 降伏, 歡喜의 범위 안에 모아진다.

- ① 總持는 다라니(陀羅尼)의 역어이다. 呪語라고도 한다. 여러 善法에서 듣고 본 바를 없애지 않고, 폭 넓게 義를 가지면서 장애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文豆樓作法이 명랑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면 眞言持誦의 總持法은 혜통에 의해 시작되었다. 眞言은 妄語와 반대된다.
- ② 단병은 단병법을 말한다. 그러나 유사어에 실병(實瓶·《密教發達志》 751쪽)과 석병(渴瓶·《密教綱要》 2쪽)이 있다. 전자는 충실한 嗣法에서 쓰여 졌고, 후자 또한 相承의 뜻이다.
- ③ 神印宗은 明期 아사리를 宗祖로 하였다. 文豆樓는 범어 Mūdra의 음역으로 밀교의 契印을 가르킨다. 당나라 때 蕃兵을 文豆婁道場法으로 물리친 바가 있다.
- ④ 逐毒은 驅鬼役神을 쫓아내는 消毒의 뜻이다.

- ⑤ 龍主의 용은 降龍祈雨, 請雨法의 주체이다. 주요경전은 《龍王經》이다. 신라 불교에서 祈雨, 祈求의 활동이 괄목되는 것이 ①757(至德2년) 숙종이 沙門 100명을 行宮에 들게 하여 부처님의 도움을 받게 축원하였다. 이때 우두머리(首領)는 不空과 신라승 無漏이었다. ②774(大歷9년) 신라승 혜초가 代宗의 칙명을 받고 仙游寺에 가서 9일 동안 기우제를 지낸 것 등이다. 필자는 이 자리에 조계사의 지원을 받아 “慧超紀念亭”을 세웠다.
- ⑥ 神呪의 운용은 광범위 하지만 주로 息災求祥과 安家治病을 비는 密呪法의 하나이다. 이와 유사한 말에 진언(眞言)이란 용어가 있다. 음역에 따라 다라니(陀羅尼), 呪, 密言라고도 한다. 즉 허망하지 않는 진실된 말의 뜻이다. 밀교에서 이 말은 三密 가운데 語密에 상당한다. 이른바 ‘眞言秘密’이다.

위의 밀교용어가 명랑 아사리에게 모아졌다는 것은 《삼국유사》의 편찬이 아무래도 초기의 雜密에서 중심인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咒語는 修習 方便으로 쓰여진 밀교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明朗과 神印>에 얽힌 서술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신인종의 宗祖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더욱 인용된 《金光寺本紀》에 의하면 명랑의 字는 國育이다. 신라의 沙干 才良의 아들로 어머니는 南澗夫人이다. 즉 저명한 승 慈藏의 누이이다. 자세한 行狀은 알 수 없으나 당나라에 들어간 시점이 자장 보다 앞선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유사》(권5)에는 자장의 입당이 선덕여왕 5년(636)이다. 명랑의 입당은 선덕여왕 원년(632)이고, 귀국은 貞觀 9년(635)이다. 이 같은 시점에 비추어 본다면 명랑이 선무의 삼장과의 만남은 없었다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선무의 삼장의 長安 도착이 현종 開元 4년(716)이기 때문이다.³⁾ 또 《삼국유사》(권2)에는 당나라의 신라 침략을 두

고 명랑법사가 龍宮에 들어가 비법을 받아 왔으니 주위에서 왕명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때가 당나라 고종과 義湘에게 맞추어 졌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에서 연대기술을 다룬 紀年이 맞지 않는 경우는 惠通에서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명랑이 용궁에 들어가 신의 도장인 이른바 ‘神印’을 얻어 가지고 나와 神遊林(天王寺)을 창건하고, 이웃 나라의 침범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또 그에 의하여 밀교의 教化도 크게 떨쳐졌다.

3. 密敎의 新羅傳播

명랑 아사리를 필두로 한 중국·일본측의 문헌 속에 나타난 신라 초기의 밀교승을 어떻게 언급하였는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삼국유사》는 밀본, 혜통, 명랑이, 중국측 문헌에는 玄超, 慧日이, 그리고 일본측 문헌에 義林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 《三國遺事》의 明朗說

명랑을 신라 최초의 밀교승으로 지목한 근대의 불교 사학자는 앞서와 같이 한국의 李能平和 일본의 구즈고즈 곱가이덴(忽滑谷快天)이다. 이후 한국의 鄭泰燾·徐閔吉이 있다. 전자는 정통적인 관점에서 말하였고, 후자는 護國儀軌에 의한 神人秘法을 실행한데서 파악하였다.⁴⁾ 중국의 何勁松도 그의 저서 《韓國佛敎史》(宗教文化出版社, 1997 ; 234쪽)에서 초기 잡밀을 홍양한 僧人으로 명랑을 언급하였다.

3) 《大正藏》 50, 新文豐出版公司, 183쪽 <玄宗朝翻經三藏善無畏贈鴻臚卿行狀>. “我皇搜集賢良, 發使迎接. 以開元四年景辰, 大賫梵夾, 來達長安”.

4) ① 鄭泰燾, 《密敎》, 東國大學校 譯經院, 1981, 169쪽 참조.

② 徐閔吉, 《韓國密敎思想史》, 雲住寺, 2006, 11쪽 참조.

2) 《元享釋書》의 義林說

[兩宋해당]《元享釋書》(卷10, 16쪽)는 國師 의림 대아사라가 103세에 신라국에 大法輪을 전하였다고 했다. 또 付法 제자인 鎮國道場 大德阿闍梨 順曉에게 밀법을 전하였고, 다시 순효가 일본의 제자인 사이조(最澄)에게 밀법을 전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반드시 신라 僧人 또는 문화가 중개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사이조는 백제도래인 僧人으로 알려지고 있다.⁵⁾

진국도량은 산동의 泰山 서북쪽에 자리한 靈岩寺에 있었고, 사이조는 일본 天台宗의 시조 傳敎大師를 말한다. 엔닌(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권2)에 의하면 齊州 영암사의 규모와 그가 목도한 聖賢·菩薩의 그림(畫像)을 상세히 적었다. 더욱 중요한 기록은 당나라 때 ‘金剛界曼荼羅’의 배치이다. 이것은 不空 삼장이 ‘金剛頂瑜伽五佛像’을 직접 조성했다고 했다.⁶⁾ 《元享釋書》(권10, 16쪽)에서 말한 鎮國道場이 이것을 지칭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圓仁이 그의 저술에서 ‘金剛頂瑜伽五佛像’은 나라를 위해 不空이 직접 造成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國淸寺에서는 중국천태종 승 道邃로부터 천태敎義를 배웠고, 또 越州 龍興寺에서 밀교를 전수받았다. 도수는 湛然의 제자이다. 《宋高僧傳》(권29)은 일본승 사이조(最澄)를 가르켜 영민한 승려로 “日本國沙門最澄者, 亦東夷卉服中剛決明敏僧也.”라고 평하였다.⁷⁾

월주는 지금의 紹興을 말하고, 용흥寺址는 지금도 성내 城內鎮東

5) 權又根, 《古代日本文化と朝鮮渡來人》, 雄山閣, 平成 2年[1990](三版), 11쪽 참조.

6) 《入唐求法巡禮行記》 권3, 開成 5年 7月 2日. “次上第二層, 禮金剛頂瑜伽五佛像, 斯乃不空三藏爲國所造, 依天竺那蘭陀寺樣 · 次登第三層, 禮頂輪王瑜伽會五佛金像”.

7) 《宋高僧傳》(권29), 唐 天台山 國淸寺 道邃傳 참조.



〈사진 1〉 운하위의 거대한 廣寧橋이다. 大殿과 약 40m 떨어졌다.



〈사진 2〉 大殿(正面)으로 통하는 골목길

門外車水橋巷에 자리한 운하 곁에 있었다.⁸⁾ 절터는 온통 民房에 점령되었고, 청나라 때의 本殿만 남아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천태밀교(台密)의 고향으로 불려진다.

사이조가 엮은(撰) 《內證佛法相承血脈譜》(東方書院, 1930, 34쪽)에는 ‘大唐沙門義林大師’란 말이 찾아진다. 즉 의림을 당나라 승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곧다 라이후(權田雷齊)의 저서인 《密教綱要》(丙午出版社, 1916 ; 3쪽)에서 <順曉和上付法記>를 인용하여 신라승 의림의 큰 역할을 설명하였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순효가 선무외 삼장을 사사하여 大悲胎藏曼荼羅의 묘법을 전수 받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의림의 역할이 줄어든다. 그러나 선무외 삼장의 嫡子 제자인 一行 → 順曉로 잇는 法脈을 채택하였지만 일행은 일찍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신라승 현초의 위상이 커진다. 이 같은 법맥에 의거한 일본의 《元享釋書》(권1)가 옳다. 위에서와 같이 一行과 함께 동학이 되어 선무외 삼장의 밀법을 이은 신라승 玄超의 위상이 커다란 산맥처럼 우뚝하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중국의 張豈之가 잘 파악하였다. 즉 선무외삼장의 제자 현초가 태장계 밀법과 불공에 의해 전해진 금강계 밀법의 두 계통을 하나로 융합하여 금강계와 태장계가 다르지 않다는 ‘金胎不二’의 사상을 제창하였다.⁹⁾ 금태불이사상은 이후 중국의 밀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신라승 현초는 여러 帝王으로부터 예우를

8) 陳公余·野本覺成, 《聖地 天台山》, 佼成出版社, 平成 8年[1996]에는 龍興寺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찾아지지 않는다고 했으나 필자는 《紹興佛教誌》, 浙江人民出版社, 2003, 44쪽에 의거하여 답사한 바가 있다.

9) 張豈之, 《中國思想學說史》 隋唐卷,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419쪽. “同時, 又從善無畏弟子玄超受胎藏界密法, 他把善無畏所傳的胎藏界密法和 不空所傳的金剛界密法融會在一起, 形成了金胎不二的思想”.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즉 代宗·德宗·順宗을 거치는 동안 三朝國師로 불려졌다. 이후 사에기 아리교(佐伯有淸)에 와서 비로소 선무외 → 의림 → 순효 → 最澄 → 廣智로 이어지는 印信의 轉傳을 명확히 하였다.¹⁰⁾

3) 《大唐靑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의 惠日說

建中 2년(781) 신라국승 혜일이 본국으로부터 信物을 가지고 와서 청룡사의 惠果 화상에게 奉上하고, 태장계·금강계와 蘇悉地를 구하였다. 이 해 신라국승 悟眞이 태장비로자나(胎藏毗盧遮那)와 諸尊持念教法 등을 전수받고, 中天竺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吐蕃國에서 생을 마쳤다. 신라 구법승 悟眞은 제455호 무상존자와 함께 500나한의 제 479호 존자로 들어가 있다. 아울러 그는 혜과의 12제자 중 일본승 구가이(空海)와 함께 들어갔다.

일본의 밀교 初祖인 구가이(空海)와 신라 승 惠日은 청룡사 惠果 아래서 밀법을 수행한 同學이다. 혜과 또한 신라승 內道場 혜초와 함께 不空三藏 아래서 수학한 동학이다.¹¹⁾

혜과의 큰 역할은 초기의 태장계와 이후의 금강계를 모두 받아 들여 이른바 ‘兩部一雙’을 받았다는 것이다.¹²⁾ 이 같은 기록은 海雲 찬

10) 佐伯有淸, 《圓仁》, 吉川弘文館, 1989, 24쪽 참조.

11) ① 《大正藏》 52, 844쪽.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 卷3 “則有金闍含光·新羅慧超·靑龍惠果·崇福慧朗·保壽元皎·覺超, 後學有疑, 汝等開示, 法燈不絕”.

② 《大正藏》 52, 855쪽. 賀王·女潭祈雨表一首 <大曆九年二月五日, 內道場沙門惠超上表> 참조.

③ 李華撰, <大唐東都大聖壽寺故中天竺國善無畏三藏和尚碑銘並序>(《大正藏》 50), 290~292쪽 참조.

④ 王益鳴, 《空海學術體系的範疇研究》, 廣東人民出版社, 2005, 318쪽, <大唐神都靑龍寺故三朝國師灌頂阿闍梨慧果和尚之碑> 참조.

의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에도 同記하였다.¹³⁾ 이를 따르는 사람은 위의 오무라 세이가이(大村西崖) 이외 또 곤다 라이후(權田雷齊)가 있다.¹⁴⁾ 그러나 不空이 입적한 후 그 지위를 이은 傳承者는 惠果가 아니고 오히려 慧朗쪽으로 모우는 주장이 있다.¹⁵⁾ 혜랑은 구가이(不空)의 제자로 金剛智를 초조로, 혜랑은 三祖로 부르기도 한다.¹⁶⁾

필자는 중국 밀교의 법맥을 혜과에서 보다 더 올려 잡아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혜과의 스승인 신라국승 玄超와 선무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와 같이 현초는 바로 선무의 삼장으로 부터 대비태장만다라의 묘법을 받고, 또 불공으로부터 금강계밀법을 받아 이를 하나로 융합시켜 이른바 ‘金胎不二’의 사상을 만들어 혜과에게 전해 준 泰山 같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같은 관점을 강조한 사람은 필자 말고도 위에서 말한 중국의 張豈가 유일하다. 현초의 전·후가 모두 걸출한 밀교의 창립자이기 때문에 법맥을 잇는 가교의 디딤돌을 놓은 역할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Ⅲ. 맺음말

《삼국유사》(권5)는 명랑의 入唐을 ‘善德王元年’, 귀국은 ‘貞觀九年乙未’라고 하여 연호를 본국과 중국을 함께 혼용하였다. 이 같은 착오는 惠通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혜통은 鄭恭과 함께 高宗 麟德 2년

12) 大村西崖, 《密教發達志》(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刊中心, 2001 ; 日本版 1918), 750~751쪽. “內眞兼傳兩部者, 蓋不可不以惠果爲初祖也.”

13) 《大正藏》 51, 786쪽 참조.

14) 權田雷齊, 《密教綱要》, 丙午出版社, 1916, 8쪽 참조.

15) 呂建福, 《密教論考》, 宗教文化出版社, 2008, 11쪽 참조.

16) 英武, 《佛教入門－密教》, 巴蜀書社, 2009, 40쪽 참조.

(665) 신라에 돌아와 龍을 축출하였다. 명랑과 혜통 두 사람은 모두 선무의 삼장으로부터 묘법을 師事받았다. 그러나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알다시피 선무의 삼장의 입당은 현종 開元 4년(716)이다.

그러면 석 一然이 이 같은 시차의 오류를 범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周邊 문제부터 찾아가 보자.

《宋高僧傳》(권14)에는 저자 贊寧의 《僧傳》이 인용되었다. 이의 末尾에 “선무의 삼장을 두고 개원 중의 사람이 아니면 정관·현경 이래 따로 무외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又無畏非開元中者. 貞觀顯慶已來莫別有無畏否)”고 반신반의하였다.

《三國遺事》(권5)에 보이는 密本, 惠通, 明朗은 모두 선무의 삼장과 직접 교섭한 것으로 말하였지만 중국·일본측 문헌에서는 이들의 實名을 찾을 수 없다.

靑龍寺 東塔院 惠果를 기점으로 위의 傳承系譜를 찾아 갈 때 保壽寺 신라승 玄超는 큰 산맥처럼 우뚝한 위치에 자리한다. 그러나 위의 《密教發達志》 《密教綱要》에서는 생략되었다. 기껏해야 구가이(空海)와 동학인 惠日까지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요컨대 태장계·금강계의 두 계통을 하나로 묶어 한 세트(兩部一雙)로 만든 惠果의 스승에 신라승 玄超가 우뚝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선무의 삼장으로부터 인도태장계의 묘법을 직접 전수받아 금강계와 융합을 시도한 최초의 아사리임을 강조하고 싶다. 아쉽게도 《삼국유사》는 그에 관한 行狀이 수록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一然, 《三國遺事》 권5, 大正藏 49.
-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新文館, 1918.
- 徐閔吉, 《韓國密教思想史》, 雲住寺, 2006.
- 鄭泰燾, 《密教》, 東國大學校譯經院, 1981.
- 大村西崖, 《密教發達志》,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刊中心, 2001 ; 日本圖書刊行會 1918.
- 權田雷齊, 《密教綱要》, 丙午出版社, 1916.
- 李英武, 《密教三經》, 巴蜀書社, 2005(2版).
- 佛教小百科, 《佛教的眞言咒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呂建福, 《中國密教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呂建福, 《密教論考》, 宗教文化出版社, 2008.
- 英武, 《佛教入門 -- 密宗》, 巴蜀書社, 2009.